중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 최고치 다시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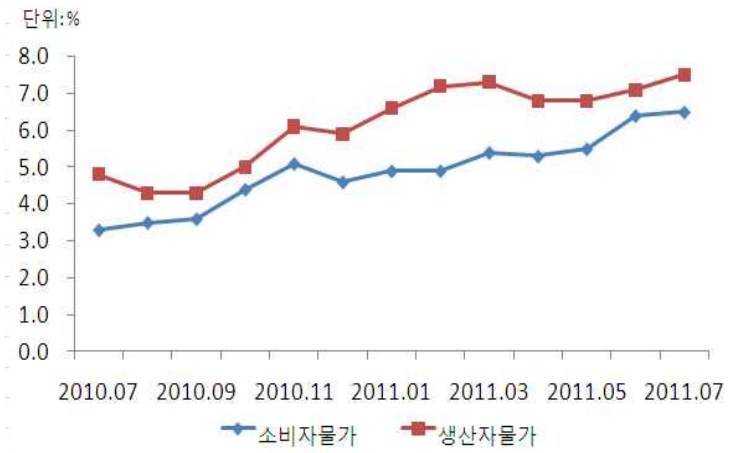
왕양비 연구원

■ 7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5%로 나타나 6월에 기록된 3년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 중 식품가격 급등이 물가상승의 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8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6월에 비해 0.1%p 높아진 6.5%로 나타났는데, 이는 37개월 만의 최고치임.
- 7월 식료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4.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4.4%p 기여하면서 물가 인상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56.7%에 달하는 돼지고기 가격 폭등이 동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1.5%p를 차지함.
- 또한, 국가통계국은 동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 지난해 가격인상에 따른 영향요인이 3.3%p, 올해의 새로운 인상요인이 약 3.2%p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함.

■ 7월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7.5%로 전월보다 0.4%p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률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중국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지속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2008년 중국이 4조 위안(약 678조 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경기회복에 기여하였는데,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금융위기가 재현된다 할지라도 중국의 자국 인플레이션 문제로 추가적인 경기부양 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판단이 다수임.

(신랑재경, 텅쉰 재경 등 8/9)